

국립의대 설립 촉구... 간호 인력 확보·시설 현대화 지원



코로나19 극복 선도 주목 받은 전남 정책

<하> 공공보건의료 확충

전남, 중증응급 유출률 전국 최고 5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 평균 이하 의대 유치반 꾸려 공감대 확산 활동 간호대생 장학금·도서지역 환경 개선

“전남과 경북 450만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불편

과 위험을 감내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 국회 소통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같은 내용을 호소하며,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공공병상 부족 탓에 대구를 중심으로 의료붕괴 위기까지 치달았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 지역 내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지방의료원 등의 대처 상황은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 인력 등 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의료계를 중

심으로 터져나왔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들어 코로나 이후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였다.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이 가능한 의료인력 양성과 격리병상을 포함한 부속병원이 있는 국립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실태는 여러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단위 인구(10만 명)당 사망률로 환산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전남이 44.1명으로 서울(36.4명)보다 많고, 응급의료취약지도 전국(98개)의 17%인 17개 시·군이 전남에 몰려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0년 실시한 ‘전국 시도별 의료 격차 실태 조사’ 결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전남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자료에서도 지역 의료 현실이 드러난다.

지역 내 중증응급 유출률(중증응급환자가 거주 지역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비율)도 전남(48.9%)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유출률이 높을수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게 협력단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민선 8기 내 정부의 국립의대 전남 설립을 확정해 안정적 지역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전담반’을 꾸리고 ‘의과대학 민간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토론회, 대정부 건의 활동, 시민단체, 타 지역과 연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간호·복지 인력 확충도 서두르

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 내 간호·복지 인력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섬(2곳)과 1개 군에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2년 이상 공공의료원에서 의무 복무할 공공간호인력을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올해 20개 시·군에 70억9300만원을 들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인프라 확충과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분반·외래 산부인과(9개소 33억원), 소아청소년과(2개소 5억6700만원) 등 필수 진료과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의대 설립과 간호·복지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키우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 /김지을 기자 dok2000@



애니 속 인기 캐릭터와의 만남 '제2회 ACCF 애니메이션 모꼬지·찾아라! 애니메이션 친구들' 행사가 9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두다다롱, 레인보우버블점 등의 캐릭터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식품 트렌드 한눈에

12~15일 DJ센터서 식품대전...김치·전통주 등 450개 부스

광주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광주식품대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로, 식품 정보교류의 장이자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기업간 거래(B2B) 및 기업·소비자 거래(B2C) 박람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300개사가 참여해 450개 부스에서 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 유기농 및 건강식품, 식품산업 기기 등 다양한 식품군을 한자리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농식품 기업을 위한 수출·구매 상담회와 해협(HACCP)발전협의회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향토음식 특별관 ▲광주 명품 김치관 ▲전통주특별관 ▲대한민국 식품명인관 총 5개의 특별관에서 광주 대표식품을 선보이고, 전시·판매와 함께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전시장 내 비즈니스라운지에서는 식품기업을 위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와 국내 유통업체(MD) 구매상담회 등도 열린다.

광주식품대전은 11일까지 사전등록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전시 기간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영수증 이벤트(3만원 이상 구매 시)를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 전남’ 축제·박람회 관람객 북적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25만명·캠핑 박람회 3만여명 찾아

주말 전남에서 열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는 28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첫 국제행사로 확대된 제 29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8일까지 3일간 25만명이 찾아 ‘남도’의 맛을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음식 축제로서 위상을 확인했다.

21개국 39명의 주한대사 등 외교사절단도 축제장을 찾아 1박 2일간 남도음식의 풍미를 직접 체험했고 개막일인 6일에는 700여 명의 영국, 미국인 관광객을 실은 실버휘슬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 남도음식을 직접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7일부터 3일간 해남 오시야도 관광단지에서 개최한 ‘2023년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도 110개 업체, 700팀이 참여하는 산업·관광 융합형 축제로 치러지면서 3만 7000여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캠핑관광 박람회의 경우 캠핑을 실제로 즐기면서 캠핑족들에게 캠핑차, 카라반, 텐트를 비롯해 캠핑용 의자·테이블 등 다양한 캠핑 장비와 용품을 전시·판매하는 이벤트들 준비해 호응을 얻는 가 하면, 장작 나르기 대회, 명 때리기 대회, 쿡킹·바비큐 클래스, 타프 빨리치기 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보다 박람회장과 야영지 규모(20만㎡)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도그올림픽, 펫스포츠 놀이 등을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제1회 전남 펫 페스티벌’ 등도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모빌리티 산업 인재 육성 본격화

산학융합캠퍼스, 올 2학기부터 교육과정 이수...기업연구관도 개관

광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새로운 산·학·연 협력공간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을 본격화 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위치한 광주빛그린산학융합지구에서 전남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산학융합지구 광주빛그린산업단지 내에 부지 1만6500㎡, 연면적 9487㎡ 지상 5층 규모의 전남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4522㎡)와 기업

연구관(4965㎡) 2개동을 완공했다.

산학융합캠퍼스는 강의실과 연구실, 실험실습실을 비롯한 최첨단 연구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남대학교는 북구 용봉동 광주캠퍼스에 있는 AI융합대학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학부)와 미래모빌리티융합학과(대학원)를 빛그린산단 산학융합캠퍼스로 이전했으며, 재학생 80여명은 올 2

학기부터 산학융합형 연구개발(R&D)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내년에는 교육 정원을 25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연구관에는 기업연구소, 공용장비 지원실, 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룸, 재직자 강의실이 들어섰으며, 50여개 기업이 입주해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특히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지원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생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 몸이 돼 광주 미래의 또 다른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보성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성벌교 갯벌

꼬막 맛 좀 볼래?

제19회 빈교꼬막축제

2023.10.27(금)~29(일) 빈교읍 천변일원